

제주예방 주간학습지 노^똑똑! <414>

한국일보·제주도 광역치매센터 공동 기획

1. 나머지 단어들과 성격이 다른 하나를 찾아 ○ 표시해 보세요

- | | | | |
|--------|-----|-----|-----|
| 1) 사자 | 토끼 | 사슴 | 복어 |
| 2) 배추 | 바나나 | 오렌지 | 사과 |
| 3) 딸기 | 석류 | 사과 | 바나나 |
| 4) 피아노 | 기타 | 가야금 | 드럼 |
| 5) 의사 | 학교 | 경찰관 | 교사 |

2. 서울에서 부산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보기>의 정보를 참고하여 질문에 답해보세요.

<보기>



- 기차 출발시간: 오전 8시 45분
- 기차 소요시간: 2시간 35분
- 부산역 도착 후 점심식사: 1시간 15분
- 식사 후 관광지로 버스 이동: 4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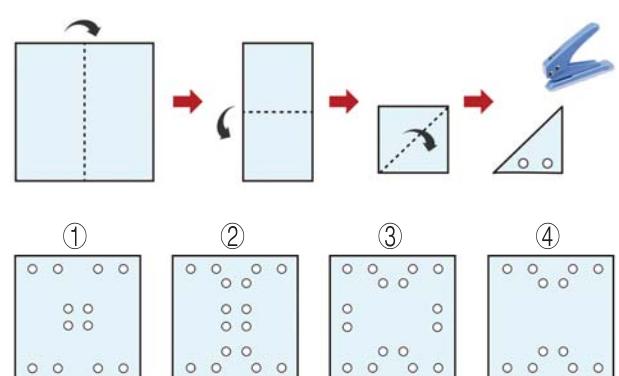
- 1) 관광지에 도착하는 시간은 몇 시 몇 분일까요?



- 2)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총 몇 분일까요?



3. 그림과 같이 종이를 접은 뒤, 접힌 삼각형 모양의 종이에 두 개의 구멍을 편치로 뚫었습니다. 이 종이를 다시 펴쳤을 때 나타나는 모양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보세요.



학습지 정답은 13면 한국계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주의 맛, 그대로. 손끝의 정성, 그대로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064) 725-1100

깊고 맑은 제주의 맛이 스며드는 한 끼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았습니다.

2026 제주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제주만의 특별한 입춘 맞이, 탐라국입춘굿놀이

'신구간' 끝나고 새해 일 시작 의미 오늘 10시부터 입춘굿 행사 진행

오늘은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이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을 맞아 제주에서는 2~4일 제주시 관덕정·목관아를 중심으로 '2026 병오년 탐라국 입춘굿'이 열리고 있다.

탐라국 입춘굿은 제주의 신들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신구간'이 끝나고 하늘의 모든 신들이 지상으로 내려와 새해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다.

탐라국 입춘굿은 탐라시대부터 조선 말기까지 진행됐고, 무당들이 치르는 무속굿을 중심으로 의례가 진행됐다. 이렇게 유구한 전통이 있는 탐라국 입춘굿에서 진행되는 활동들에는 소원지 쓰기, 굿 청 열명 올리기, 굿청 기원 차롱 올리기 등이 있다.

행사 첫날인 2일에는 도내 주요 관청과 관덕정 인근에서 퍼레이드 형식으로 진행하는 거리굿이 진행됐으며, 3일에는 입춘맞이 다양한 공연과 체험이 있는 열림굿이 진행됐다. 마지막날인 4일에는 입춘 당일에 진행하는 입춘굿이 펼쳐진다.

4일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관덕정·관덕정 광장에서 진행된다. 요금은 무료다.

입춘이라는 절기 자체는 제

주도만의 문화가 아니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신구간'이라는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입춘굿을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제주 전통을 즐겁게 체험해 보며 2026년의 봄을 좋은 기운과 함께 맞이해 보자.



<제주중앙여중 1학년>

제주은행 동우회 정기총회 개최

제주은행(은행장 이희수) 동우회(회장 장재영)는 최근 폐종글래드 제주 호텔에서 이희수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파트장, 동우회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도 신년하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동우회는 제주은행의 발전 후원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전직 임직원으로 구성됐다. 후원활동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회원 간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총회에서는 지난해 주요 경과 사항과 감사를 보고



하고 올해 주요 사업 계획과 목표를 공유했다. 또한 신임 부봉오 회장이 취임했으며, 제주은행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주보호관찰소 설 맞이 온정 나눔 실천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이맹숙)는 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한)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관찰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조성됐다. 제주보호관찰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자속적으로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항운노동조합 취약계층 지원 성금 기탁

제주도 항운노동조합(위원장 박남진)은 최근 제주도청에서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박남진 위원장은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모아 준비한 성금이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노동조합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상윤 대표 서울제주도민회 회장 당선

서울제주도민회 제35대 회장에 김상윤(사진) 탐라랜드 대표가 당선됐다.

서울제주도민회(회장 강성언)는 지난 31일 서울 강서구 탐라영재관에 위치한 도민회 회의실에서 제35대 회장 선출 회의를 열고, 단독 출마한 김상윤 후보를 차기 회장으로 확정했다.



김 당선자의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한다.

김 당선자는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출신으로 제주 중앙고와 아주대 경영대학을 졸업했다. 재경과좌읍민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재경제주중앙고총동문회장과 (재)서울제주도민회장학회 이사, 재외제주경제인총연합회 회원, 탐라랜드 대표를 맡고 있다.

김 당선자는 소견 발표를 통해 "28만 서울 제주도민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모시고 회원이 주인이 되는 도민회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병원, 민유홍 혈액내과 교수 초빙

국내 혈액종양내과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민유홍 교수(전 세브란스병원 혈액내과 교수·사진)가 지난 2일부터 제주한국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했다.



민 교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에서 혈액내과 교수로 재직하며 조혈모세포이식센터장, 혈액암센터장, 의과대학 임상의학연구센터 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총무이사, 대한혈액학회 이사장, 급성골수성백혈병·골수이형성증후군연구회 위원장, 한국조혈모세포은행학술위원회 위원장 등 국내 혈액학 발전을 이끌어온 핵심 보직을 두루 맡아왔다.

특히 민 교수는 30년 이상 백혈병 환자 곁을 지켜온 국내 대표 혈액암 전문가로, 1991년부터 혈액내과 교수로 재직하며 국내 조혈모세포이식과 혈액암 치료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제주관광대 조원우·최종운 프로 입단

제주관광대학교는 최근 본교 축구부 소속 조원우(왼쪽)·최종운 선수(오른쪽)가 각각 K리그1 강원FC와 K리그2 김포FC에 입단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관광대학교 축구부는 2025년 학생선수 21명으로 창단했으며, 2026학년도에는 프로 신시즌 선수와 전직 프로팀 선수 등 31명이 새로 합류해 전체 선수단 규모를 49명으로 확대했다.

감독에는 전 국가대표 임근재 감독이 선임됐고, 골키퍼 코치는 국내 출신 김봉수 코치가 맡았다. 코치진에는 중앙대 출신 김용희 코치와 승실대 출신 김형민 코치가 합류해 탄탄한 지도자 구성을 갖췄다.

제주의 바다와 들에서 얻은 재료,
그리고 제주웰링의 정성 어린 손맛.
몸이 편하고 마음이 쉬어가는 한 끼,
그게 바로 제주웰링입니다.



신한에코 | 제주 전통방식으로 직접 조리한 식품

따뜻하게 데워 간편하게 집밥의 맛을 느껴보세요



이런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실 분,
기존 식당 메뉴에 추가를 원하시는 식당 사장님
행사, 도시락, 단체급식 등에 추천드립니다.